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박해진 日 가수데뷔

내년 2월 음반 발표

‘소문난 칠공주’ 등에 출연한 차세대 한류스타 박해진이 일본에서 가수로 정식 데뷔한다.

배우 박해진은 도쿄 와우와우(WOWOW) 방송국 본사에서 열린 일본 드라마 ‘삿킨구(借王) 2-운명의 보수’ 제작발표회에 참석, 내년 2월 9일 데뷔 싱글 ‘운명의 바퀴(轆)’(가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데뷔 싱글 발매를 기념해 2월 5일 오사카의 NHK 오사카홀과 9일 도쿄의 씨세레논홀에서 팬미팅도 개최할 예정이다.

박해진은 이에 앞서 내년 1월 8일 시작되는 ‘삿킨구 2-운명의 보수’의 주제가도 직접 부른다.



내달 7일 종영 SBS '인생은 아름다워' 작가 김수현

“다양한 인생 함께 웃어야 아름다운 인생”

한국 드라마계에 있어 기념비적인 작품이 다음 달 7일 막을 내린다. SBS TV 주말극 ‘인생은 아름다워’다. 지난 3월 출발해 8개월을 달려온 이 드라마는 안방극장에 ‘동성애 폭탄’을 터뜨리는 파격을 감행하고 재혼가정의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다양한 인물의 일상을 놀랍도록 소소하고 작하고 잔잔하게 그리며 평균 20% 대의 시청률을 유지해왔다.

최근 극중 동성애 커플의 성당 안약식 장면이 통편집당한 사건으로 불편한 심기를 트위터에 토로하기도 했던 그는 “당시에는 무척 화를 냈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다. 난 원래 그때뿐이다”며 ‘쿨’하게 답했다.

“동성애에 좌장 상상 못했던 일”

-처음부터 동성애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스스로도 트위터에 ‘수난’이라는 표현을 썼다.

▲SBS가 애를 썼지. 뜨거운 것을 손에 들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안지도 못하며 찢찢 찢찢 뭐. 40년 작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쓴 장면이 이렇게 통편집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화가 많이 났지만 어떡하겠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있으니. SBS로서는 오랜 이가 빠진 기분일 거다.(웃음)

-성당 안약식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했나

▲내가 원래 ‘명칭’하다. 설마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촬영하다 쫓겨났다는 소리를 듣고 모자란 세 컷을 대신해 속소리(마음의 소리)로 처리하는 대본을 써서 보냈다. 그래서 통편집이 될 줄은 몰랐다. 종교라는 게 무섭지 않다. 솔직히 종교는 ‘폼’조차 없어야 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무 달콤하게 생각했나 보다 싶었다. 살인자

보다도 동성애자가 안된다고 하나...
-동성애자들의 존재와 인권을 공론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의외로 이런 드라마를 왜 보냐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 동성애 때문에 일간지에 우리 드라마를 비난하는 광고까지 실렸는데 기획했을 때는 조금 시끄럽긴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난리가 날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드라마를 지켜봐 주고 사랑해준 시청자들이 계셔서 고마울 따름이다. 김수현의 시청률로는 아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난 이 드라마가 20%를 유지한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20%는 한국사회의 열린 마음을 상징하는 대단한 숫자다. 시청자가 이렇게 고맙기도 처음이다.

-동성애를 다루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다.

▲하도 불편해하는 목소리가 있어 태삼-경수의 스킨십을 약화시킨 것 빼고는 아쉬움 없다. 거창하게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해 나선 것은 아니다. 그저 주인공 가정에 자식이 많다보니 그 중 하나쯤은 동성애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도중에 태삼을 병원에서 내보내거나 둘을 외국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도 있었지만 난 그렇게 쓰기 싫었다. 처음부터 이들을 성적인 존재로 접근한 것도 아니고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지도 않았다. 왜 그들을 다른 데로 보내야하나. 드라마에서 동성애자를 희화화시키는 것이 너무 싫다.

-동성애는 파격이었지만 그의 부분은 기가막힐 정도로 잔잔하고 소소한 이야기였다.

▲싱거웠을 수도 있는데, 심경치 않으려면 편 얘기를 써야하지. 그냥그냥 어디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망가지지 않은 사람들로만 써보고 싶었다. 그래서 불쾌하지 않았겠지. 예쁜 꽃을 보면 기분이 좋듯이 선한 사람들을 보면 불쾌할 필요가 없지 않다. 요즘 드라마 너

무 무시무시한데 거기에 나까지 손가락 하나 더 얹어야 되나. 그래도 우리 드라마에 있을 건 다 있었다. 재혼가정에, 데리고 들어간 자식, 동성애 등... 자극적으로 안다웠을 뿐이다.

“시청률 20% 열린마음 확인한 것”

-막장 드라마가 판을치고 있다.

▲차라리 내놓고 ‘악녀’라는 제목으로 드라마를 쓰면 이해하겠지. 그런데 말쑥한 캐릭터들을 놓고 꼬이고 아귀도 안맞고 개연성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런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다 그렇게 사악한가 싶다. 모두들 품격있게 일했으면 좋겠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인가.

▲어찌 사느냐에 따라서 아니겠나. 우리 드라마 속 사람들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산다면 불행할 일이 없겠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것이다.

-이번 작품을 통해 작가가 세상에 통달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난 안 변한다. 아직도 날카롭고 생까고 천진난만하다. 이 나이에 천진난만하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나 스스로 ‘명칭하다’고 말하는 거다. 난 인간에 대한 의심도 없고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

-트위터를 아주 활발히 한다.

▲오후 3~4시에 일을 끝내면 뒤에는 그냥 논다. 그때 트위터가 제일 편하고 쉽다. 호흡이 짧으니까. 하지만 고민이 된다. 무슨 말만 하면 금세 퍼져 나가니까 좀 부자유스럽긴 하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예 말을 안 하기도 하지만 일단 말을 꺼내면 가감을 하지는 않는다.

/연합뉴스



‘김감수표’ 시트콤 나가신다

MBC ‘몽땅 내 사랑’ 내달 9일 첫방

연기과 중견배우 김감수가 다음 달 9일 첫방송하는 MBC 시트콤 ‘몽땅 내 사랑’(극본 박민정 등, 연출 강영선·황교진)을 통해 처음 시트콤 연기에 도전한다.

그가 연기하는 김 원장은 보습학원 원장이자 학원 건물을 포함한 많은 건물을 소유한 소문난 부자다. 어린 딸을 잃어버린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인물로, 딸을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다.

여기까지는 언뜻 멀쩡해 보이지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잔뜩이라는 특징을 가졌고 시트콤 속의 인물인 만큼 우스꽝스럽게 그려진다.

김감수는 제작발표회에서 “예는 프로그램이라면 얼마 전 ‘무릎팍 도사’에 출연했던 게 전부”라며 “‘무릎 팍 도사’ 출연 이후 다른 장르에 도전해보고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출연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트콤 연기가 부담인 것은 사실이다. 촬영 중에도 재미있을까 고민하고 있고 연출하는 PD에게도 자주 재미있느냐고 물어보며 연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감수는 “최근 출연하는 드라마에서 죽는 일이 유난히 많다”고 웃으며 “드라마 촬영장에서 복수하고 음모를 꾸미다가 시트콤 촬영장에서 일상적인 연기를 하니 편안한 기분이다. 내 일상생활 모습과 비슷한 연기라서 편안하고 재미있게 연기하고 있다”고 했다.

“첫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출연진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떨 것 같아요. 고민도 많이 했고 걱정도 되지만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비슷한 느낌으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아프리카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호텔식 OPEN

전기계 골프존 / 대형룸 6실 | 전화예약후에 무료라운딩을 즐겨보세요!! (단, 10월 31일까지)

실전과 같은 시뮬레이션!!

- 각 룸별 독립공간, 인력한 라운딩 제공
- 필드 느낌을 그대로 재현하는 대화면의 초대형 스크린
- 골프장의 지면에 따라 타석이 움직이는 최신 무빙시스템
- 장타대회, 니어핀 대회 등 온라인 상시 골프대회
- 전자석 스윙 분석기 설치

호남 모든 골프장을 현장의 감동만 담았다! 300만 골퍼가 인정한 현장감!!

예약문의 : 062-671-8900

분선동 무등 4차 복합상가 지하

Angelo

안젤로는 이태리어로 천사입니다.

이태리가구 전문점

100% MADE IN ITALY

안젤로 오픈기념 20% OFF 11월 30일 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307-1 화정동사거리 구, 푸조전시장
062-382-0022, 381-3388